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수출입과 나성화 과장(044-203-4040), 이길준 서기관(4043)

범부처 수출지원기관, 수출기업지원 위해 협업강화키로

- 성과 사업·소비재·서비스 분야에 인력·자원 집중
- 지원사업 홍보 강화로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
- 각 기관간 협업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시너지 강화

-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20일(수) 코트라, 농수산물유통공사(aT), 수은, 무보 등 수출지원기관장들과 만나 수출중소·중견기업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지원기관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음

< 회의 개요 >

- 시간/장소 : '16. 1. 20(수) 11:00~13:00 /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
- 참석자
 - (산업부) 장관, 무역투자실장, 무역정책관 등
 - (수출지원기관) : KOTRA 사장, 무역협회 부회장, 무역보험공사 사장,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, 수출입은행장,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, 보건산업진흥원 이사, 콘텐츠진흥원 부원장, 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

- 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금년도 수출부문 정부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, “수출품목, 시장, 주체, 방식, 지원체계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출 회복에 전력 투구”할 것임을 강조
- 특히, 시장과 관련해서 이란의 경우 우리기업들의 진출의지가 강하고, 중국·유럽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,

- 우리 기업들이 현지활동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기관별로 지원 시책을 마련,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

- 수출기업지원과 관련, 주 장관은 수출지원기관장들에게 다음 3가지를 중점 강조함

- ① 각 수출지원기관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 있는 사업 위주로 자원과 인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
 - 특히 새롭게 업무가 확장되는 소비재, 서비스 분야에 인력, 자원을 투입·배분할 필요
- ② 각 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주문
 -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“국민과 기업이 모르면 없는 정책”이라는 점에 유념, 지원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요청
 - 또한, 기업이 찾아오기 전에, 미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
- ③ 수출지원활동을 유망 품목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, 기회요인에 집중하되,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노력할 필요
 - 주요 수출 품목이 소비재·서비스로 확장되는 만큼 기관별로 기능을 조정하고
 - 각 기관의 장점을 연결하는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

□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장들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수출 지원 방향을 밝힘

<품목기관 : aT, 보건산업진흥원, 콘텐츠진흥원, 플랜트산업협회>

- 中 검역장벽 해소·할랄식품시장 개척 지원(aT), 수주 경쟁력 제고 지원(플랜트산업협회),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전략 추진(보건산업진흥원), 신시장 마케팅 역량 집중(콘텐츠진흥원) 등

<무역금융기관 :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>

- 타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무역금융 지원* 확대

* (수은) KOTRA 추천 수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, 무역관을 통한 전대금융 홍보 (무보) 서비스종합보험 지원강화, 농수산물품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(15억→20억원)

<종합지원기관 : KOTRA, 중소기업진흥공단, 무역협회>

- 소비재 수출마케팅 사업을 공동주관하여 업체발굴, 일정 연계 등의 협력*을 강화

* 차이나데스크(무협)-해외활용지원센터(KOTRA) 연계한 정보제공·마케팅 지원 등

□ 주 장관은 “수출지원기관의 역할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 「수출지원기관 협의체(가칭)」 구성을 제안하였고,

- 각 기관장들은 「수출지원기관 협의체」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간의 협업을 논의,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
- 주 장관은 동 협의체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매월 주재할 예정인 「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」를 통해 논의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길준 서기관(☎ 044-203-40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수출지원기관 참석자

번호	소 속	직 책	성 명	비 고
1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(KOTRA)	사 장	김재홍	
2	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사 장	김재수	
3	중소기업진흥공단	이사장	임채운	
4	한국무역보험공사	사 장	김영학	
5	한국수출입은행	행 장	이덕훈	
6	무역협회	부회장	김정관	
7	한국플랜트산업협회	부회장 (회장직무대행)	염동관	
8	한국보건산업진흥원	기획이사	염용권	
9	한국콘텐츠진흥원	부원장	김영철	

《 회의 개최 배경 》

- 장관 취임이후 산업부 내부 보고, 수출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려운 수출 환경을 절감하고 있음
- 13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기업 현장 방문, 인천공항 물류현장 점검 등을 했고, 어제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인들의 수출애로를 경청함
 - 현장을 다녀보니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으나, 대내외 수출여건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
- 오늘 이 자리는 수출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
 - 수출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함

《 수출 정책 방향과 수출지원기관의 역할 》

- 잠시 후 무역국장이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수출정책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, 몇 가지 핵심만 우선 제시하자면
 - 올해 산업부는 수출품목, 시장, 주체, 방식, 지원체계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출회복에 전력 투구할 생각

- 먼저, ① 수출품목은 소비재, 서비스, 기술·브랜드로 다변화하고 R&D, 마케팅 등 정부정책도 이에 맞춰 집중 지원할 예정
- ② 시장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, 한·중 FTA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별 맞춤형 지원 예정
 - 특히, 이란의 경우 상품수출은 물론 에너지·플랜트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의지가 강하고, 중국·유럽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,
 - 수출지원기관들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활동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지원 시책을 마련, 즉시 시행할 필요
 - 한편, 지난 2월말 이란을 방문, 한-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우리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계획
- ③ 주체면에서는 중소·중견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할 계획
 - 각 수출지원기관이 현재도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, 더욱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
- ④ 지원체계와 관련, 이러한 품목·시장·주체 분야에서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도록 조정하고,
 - 칸막이형 지원에서 네트워크형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함

《수출 지원기관에의 당부말씀》

□ 이러한 정부의 수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수출지원 기관장님들께
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

① **(성과주의)** 우선, 각 수출지원기관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
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있는 사업 위주로 자원과 인력을
집중할 것을 당부

- 특히 새롭게 업무가 확장되는 소비재, 서비스 분야에 인력,
자원을 투입·배분할 필요

② **(홍보강화)** 각 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들이 모르고
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에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

-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“국민과 기업이 모르면 없는 정책”
이라는 점에 유념, 지원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 필요
- 또한, 기업이 찾아오기 전에, 미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
찾아가서 도와준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

③ **(협업)** 수출지원활동을 유망 품목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,
기획요인에 집중하되,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노력할 필요

- 주요 수출 품목이 소비재·서비스로 확장되는 만큼 기관별로
기능을 조정하고
- 각 기관의 장점을 연결하는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
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